

#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 본당 소식

### ◆ 견진 교리 안내

- 일시: 4월 18일부터 매주 토요일 3-5시
- 견진성사: 5월 24일 주일 미사 (주교님 집전)

### ◆ 구역별 가정 면담 및 학생 면담

- 일시: 주일 미사 후
- 장소: Parish Center 내 신부님 집무실
- 면담순서: 황석두 구역, 이호영 구역
- 지참물: 교적, 교무금 약정서, 신앙현황서

### ◆ \* 신부님 사정으로 이번 주 면담은 쉽니다. 해당 구역장님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콜럼버스 교구 프레드릭 주교님을 위한 기도

주교님께서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이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목자로 봉사하실 수 있도록 주교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 ◆ 1/4 분기 재정위원회 회의

- 일시: 4월 25일(토) 오전 11시
- 장소: 재정위원장 추후 공지

### ◆ 성모회 모임

- 일시: 4월 26일 주일 미사 후
- 장소: Parish Center

### ◆ 정하상 구역모임

- 일시: 4월 25일(토) 저녁 7시
- 장소: 박종연 형제님 댁 (614-873-0625)  
6702 Park Mill Dr. Dublin, OH 43016

### ◆ 황석두 구역모임

- 일시: 4월 25일(토) 저녁 7시 30분
- 장소: 고상식 형제님 댁

### ◆ 친교 준비 봉사자

- 4월 12일: 성모회    4월 19일: 박귀영

### ◆ 4월 친교 후 정리 봉사: 정하상 구역

### ◆ 2009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5,70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818.75
교 무 금	\$921.29
감 사 헌 금	\$100.00
BAA	\$500.00

- 교 무 금: 한석철 박종연 최예리 김태훈 최일성  
김준식 임인홍 이진학
- 감사헌금: 최예리
- BAA: 한석철



#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 April 19, 2009



<예수님의 상처를 확인하는 토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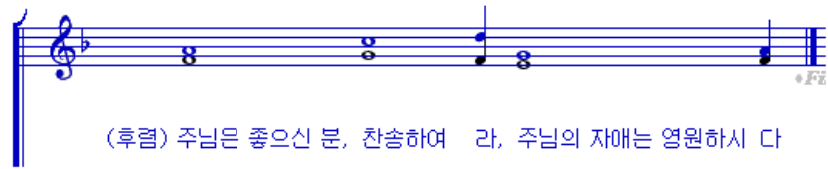
1250년, 채색삽화, 퀴리리호 도서관, 브뤼셀, 벨기에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사도행전 4,32-35  
“한마음 한뜻”

화답송



제 2 독서 요한1서 5,1-6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깁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0,19-31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5,033단 32명
이호영	200단 2명	18,799단 122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350단 3명	2/22/04 - 4/12/09 (269주)

총누계: 212,532단 12,755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 봉사자 안내

	4월19일	4월26일
해설자	안유신	서경환
독서/봉헌	정하상 구역	이호영 구역
보편지향 기도	평화의 모후	상지의 옥좌

## 오늘의 성가

♫ 입당: 129      ♫ 봉헌: 214  
♫ 성체: 157 164      ♫ 파견: 130

## 새 생명은 필연코 새 삶을!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평화를 기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들 상호 간의 왜곡된 관계를 복원시켜 주셨습니다. 평화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화 속에서 성령으로부터 힘을 받아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게 될 선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함으로서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뵈고서야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사도에 관한 이야기는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조차도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에서는 부활하신 분의 발현을 통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비로소 개막되었음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에 관해 깊이 숙고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란 무릇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도록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께서서는 믿는 모든 이에게 삶의 변화를 매 순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진정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고자 한다면 날마다의 삶을 새롭게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회개하며 살아야 할 당위성은 사순절에만 유효했던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 낡은 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림으로써 자신의 일그러진 삶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의미에서의 회개는 부활 축일 이후에도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강한 몸짓을 통해 부활의 기쁨 곧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합니다.

토마스 사도가 고백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신앙 고백은 신앙인의 삶 안에서 매 순간 지속적으로 고백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인의 삶 안에서 절대적인 주관자가 그리스도가 되고, 추구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가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삶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 곧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요한17,3)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은 우선적으로 하느님과 화해하고 우리 인간들끼리 화해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구체적인 삶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부활의 새 생명에 관해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토마스 사도처럼 아직도 구체적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믿을 수 있다는 식의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삶의 낡은 모습을 변화시키는 일이야말로 부활의 삶을 사는 길이 아닐까요?